

## Artist's Statement

윤선홍

### 나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고,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좋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마음이 한층 풍요로워진다. 그런 이를 만나는 일,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일은 삶이 건네는 큰 행운이자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된다.

윤선홍의 화분에는 자연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한 담겨 있다. 각양각색의 형태와 저마다의 향기,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작가의 내면 언어는 관람자의 감정과 만나 또 다른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그렇게 작품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로 확장된다.

조형 언어로서의 녹색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 속에서 숨은 그림처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스며 나오고, 어느새 공감의 미소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술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작은 화분 속에도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기에, 나의 마음 또한 그 우주에 조용히 내려놓아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 소녀

작품 속 화분은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식물이자, 동시에 작가의 그리움이며 추억의 무늬이다. 어떤 대상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깊이 새겨질 때 남는 인상들을 담아, 의인화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근거리는 꽃밭 같은 마음에는 나비가 훨훨 날아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기도 한다. 바람이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고, 가뭄처럼 메마른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어느 날은 분홍 꽃 한 송이가 되어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바람이 피어나기도 한다.

'소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꽃잎 하나하나에서 생명의 작은 속삭임이 노래처럼 흘러나와, 보는 이의 추억과 마음을 울리고 함께 공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기쁘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행복의 풍경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투명한 마음으로, 소년의 시선을 품고 우리의 이야기를 작업한다.